



박소현의 섹.시.토크

날이 더워지면서 집안에서 옷을 벗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실 고작 한꺼풀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고 안 입고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자들의 경우는 브래지어를 하고 안 하고 가 체감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렇다고 집안에서 마냥 시원하게 입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방문객, 택배 아저씨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친구는 택배 아저씨가 왔을 때 급히 꺼입을 수 있는 옷을 늘 현관에 준비해 둔다고 한다. 집안 어디에 있던 벨 소리가 나면 현관으로 달려가 후다닥 입을 수 있도록 말이다.

이에 반해 남편들은 방문객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편이다. 일단 저녁시간 이후에 집에 돌아오니 그 시간에 들이닥칠 택배기가 있을 리가 없고 이웃집 아저머니들이 찾아올 시간도 아니다. 당연히 벗고 지내는 것에 하등 거리낄 일이 없다.

H의 남편은 누드에 특히 강한(?) 사람이었다. 워낙 열이 많은 체질이라 한겨울에도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집안을 활보하는 사람이니 한여름에는 오죽하겠는가.

퇴근 후에 일단 샤워를 한판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 식탁에 앉을 때 까지 누드를 고수했다. 세 살짜리 아들 녀석도 기저귀만 찬 채 올 누드로 지

내너라 부자가 한 쌍의 누드패밀리를 이루는 셈이었다. H도 마음 같아서는 남편처럼 벗고 싶지만, 출산 후에 빠지 못한 뱃살 때문에 영 자신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남편이 밤마다 벗고 다니다보니 H는 새삼스레 남편의 몸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를 갖게 되었다. 늘 키가 작다고 구박해왔



는데, 뒤에서 보니 이 남자 은근히 다리가 길다. 게다가 엉덩이도 꽤 탄탄한 편이고 어깨도 제법 넓은 것 같다. 뱃살은 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은 봐줄만 했다. 특히 가슴 비의 몸에만 있는 줄 알았던 잔근육들이 내 남편의 몸에도 약간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면 수확이었다.

“당신 요즘 운동해?”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딤어. 근데 그건 왜 물어?”
“근육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물었어? 내가 원래 근육이 좀 있는 몸이야.”
괜히 이런 대화도 오가고, 그러다보니 또 자연스럽게 흐뭇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그것이 잠자

앞동 아파트서 전화

“아저씨 옷 좀 입으세요”

“보기 싫으면 안보면 되잖아요.”

“몸매라도 좋으면 봐줄만하기라도 하지.”

리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H는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거기 205동 407호 맞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앞 동 사는 사람인데 관리 사무소 통해서 전화번호 알아냈어요.”

벗는 게 죄일까? 보는 게 죄일까?

“무슨 일이지요?”
“그 집 아저씨 옷 좀 입으라고 전해 주실래요? 우리 부엌 베란다로 다 보여서 눈을 어디다 뒀어 할지 모르겠어요. 아파트에서 그렇게 벗고 생활하는 거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 모르세요?”

상대방의 격앙된 말투 탓인지 무더운 날씨 탓인지 H는 내심 당황하면서도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말았다.

“보기 싫으면 안보면 되잖아요.”

“네?”

“복도에서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베란다에서 일부러 노출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실 안방 오가는 건데 그것도 맘대로 못하나요?”

H의 반격에 상대방은 어이가 없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결국 “네, 그럼 맘대로 하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끊기 직전 마지막 한 방울 H에게 날리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몸매라도 좋으면 봐줄만하기라도 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H는 생각했다. 앞 동 여자화가 난 것은 내 남편이 벗고 다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 남편의 몸매가 별 볼일없기 때문일까? 알만 생각해도 후자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 순간 후근 더위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연애칼럼 니스트>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이번에는 야구선수다. 지난 4월 폭행사건으로 인터넷 세상을 달구었던 배우 최민수에 이어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정수근이 음주폭행사건으로 네티즌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정수근은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경비원과 경찰을 폭행하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정수근이 몇 번 폭행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만큼 네티즌은 이번 사태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4월 교통사고를 당해 네티즌의 안타까움을 샀던 방송인 신정환이 방송에 복귀해 '열애'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정환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자친

롯데 정수근 음주폭행사건 네티즌 집중 포화

구가 있다'고 밝히면서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네 아이의 엄마 안젤리나 졸리도 인기 검색어에 등장했다. 3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등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졸리가 지난 13일 남자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자녀가 여섯 명으로 늘었다. 게다가 쌍둥이남매의 사진이 110여원에 팔리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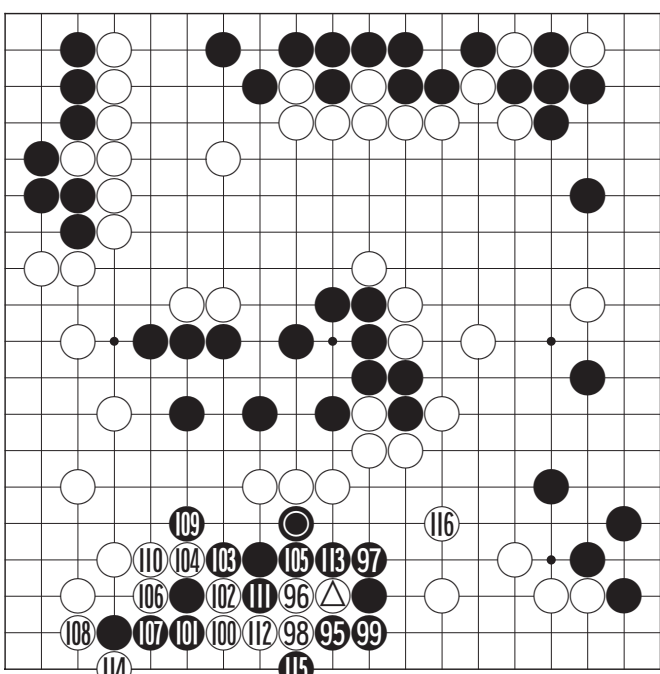
일본이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발표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뜨거워지고 있다.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휘말리고 있는 독도.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방화와 휴가를 맞아 독도를 방문하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독도가 인기 검색어로 급부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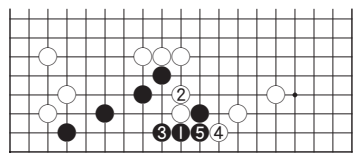


제17회 光日盃

준비된 안전장치

4회전 1국 6보 (95~116)

白 장장호 5단 (포스코) 黑 이창준 5단 ((주)송림)



<참고도>

흑의 철저한 실리작전에 말려 백이 집부족중에 시달리고 있다. 백 109로 붙여간 수가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위한 유일한 승부처였다. 그러나 이것도 이창준 5단이 미리 흑 110를 교환해 안전장치를 해두었음이 곧바로 밝혀진다.

흑 95로 아래에서 찌른 수가 이창준 5단이 준비한 수였다. 흑 109가 없

다면 95로 아래에서 받을 수가 없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정장호 5단은 유일하게 기대를 걸었던 승부수가 쉽게 불발이 돼버리자 화가 났다. 그래서 내친 김에 96으로 속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흑 97로 막아서자 115까지 몽땅 잡혀버리는 결과만 초래했다. 앞치대 댈친 격으로 손해만 키운 것이다.

96은 '참고도'의 백 2로 올라서고 4를 선수하는 정도가 정수. 그러나 이 정도로는 힘들다는 것이 손해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백 116이 쓰디 쓴 후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광주 kixx 송태곤 9단 승단

광주 kixx팀의 송태곤이 '바둑에 관해서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入神)'는 9단 반열에 올랐다.

송태곤은 지난 10일 열린 제10기 농심신라배 세계바둑최강전 국내선발 1회전에서 9단 승단 조건인 기준 관수(24국)와 기본 점수(평균 75점)를 채웠다. 허장호 9단 문하인 송태곤은 1999년 12월 박영훈 9단과 함께 입단했으며, 지난 2002년 제7기 박카스배 천원전에서 조현원 9단에게 승리하면서 '16세 천원 등극'이라는 파란을 일으켰다. 2003년 제16회 후지쯔배 준우승 등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Table with 12 column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8일(음 6월 16일 己未), and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their respective horoscopes.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Table with 4 columns: 굿모닝 잉글리쉬 <1206>, 오하오우 니혼고 <1206>, 니하오 쑹구워 <183>, 한자 이야기 <823>. Each column contains a lesson with English, Korean, and Japanese text, and a table of words.